

# 공동자원과 마을의 관계 맺기

## : 제주 하례리 마을과 효돈촌을 중심으로

신 소 연

(제주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이 논문은 하례리 마을을 흐르는 효돈천과 마을의 관계의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어릴 때부터 이 마을에 살았던 주민들은 효돈천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 건천이 대부분인 제주에서 연중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 ‘댁물’은 천 주변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주었다. 식수를 제공했으며, 인근에서는 빨래를 하고, 아이들은 물놀이와 목욕을 하고, 젊은 연인들의 연애장소가 되기도 했다. 이렇듯 효돈천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행위들은 마을 내에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시켜갔다. 발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물부조가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와 함께 이러한 문화는 기억 저편으로 비켜갔다. 산업의 형태가 대부분의 밭작물 농업 또는 몇몇의 제지업, 석제업이 존재하던 것이 1970년대 들면서 대부분의 농가가 감귤농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게 되면서, 효돈천과 함께 했던 마을 사람들의 생계와 생활이 본격적으로 변화되었다. 농업구조가 생계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되면서 생태계, 마을경관, 인간관계를 변화시켰다. 발표자는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관계의 단절로 설명하고 있다.

관계가 단절되었던 마을 사회가 2014년 이래 생태관광마을로 지정됨으로 마을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은 마을 사람들을 고무시켜 마을 자원을 활용하여 생태관광마을을 만들고 있다. 과거의 효돈천에 대한 기억 속에서, 트래킹 코스 만들기, 초등학교 환경교육지원 등으로 효돈천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며 새로운 기억을 후대에 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동자원을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상호부조 연결망이 마을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발표자는 공동자원을 활용했던 경험의 축적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 발표문에서 필자가 하례리를 오가며 여러 사람들과 만나며 조사한 노고가 느껴졌습니다. 본 토론문에서는 독자의 입장에서 의문 나는 점을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첫째, 하례리 마을 과제가 마을 소득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귀포 내에서 지명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했는데(9쪽) 마을의 과제는 누가 설정한 것이지요? 근거가 하례리 이장님의

인터뷰인데, 이장님의 개인적 생각인건지 아니면 마을 의사결정과정에서 결정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흔히 지방자치단체는 흔히 관광수익을 위해 지명도를 높이려고 마을축제, 특산물 개발(관광상품으로의 개발), 관광지 조성에 집중하고, 동시에 교육사업으로 각종 대회를 통해 애향심을 고취시킨다. 그런데 하례리의 경우 마을의 지명도를 높이려고 하는 이유가 글에서는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본 발표문의 서론에서 하례1리의 사례를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자원으로 마을 살림하는 것으로 재평가하려고 한다고 글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생태관광마을로 지정되기 이전, 하례리는 영어마을·태풍센터 및 전지훈련장 유치 등 여러 시도를 하였지만 실패했다는 인터뷰에서(10쪽) 생태관광마을도 많은 시도 중의 하나로 읽힙니다.

그렇다면 생태관광마을 형성 이전에도 마을공동체 회복이라는 문제의식이 마을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생물권보전지역 사무국의 제안(9쪽)으로 생태관광마을이 되었고, (주)생태관광대표(14쪽, 15쪽)의 인터뷰에서도 생태관광의 결과 마을공동체가 강화된 것이라면 이것을 효돈촌을 기억하는 주체와 사업의 주체가 다르고, 목적론적이 아니라 결과론적인 것이라면 이를 (주민이) 공동자원으로 마을을 살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셋째, 감귤사업을 특화시켜 감귤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귤농업은 개별적인 것으로 두고 효돈촌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이유가 감귤 이외의 생산을 담당하고 싶은 마을 사람들의 바람(13쪽)이 섞여 있는지 궁금합니다.

넷째, 관광객의 증가로 생태관광마을 사업을 둘러싼 마을사람들 간의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10쪽) 그에 대한 부가설명이 전무하고 마을사람들의 인식변화로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갈등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해결해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이 완성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봐 조심스레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글이기에 시대적 직·간접배경과 밀착시켜 설명해주었으면 좀 더 이해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하례1리에는 18개의 자연마을이 있었으며, 당시 마을 인구는 1,800여명까지 증가했던 시기였다(3쪽)라는 문장에서 과거가 어느 시기를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술채록을 발표자가 다시 정리해 시대적 변화에 따른 보편적 변화인지(소 대신 경운기가 사용되었다, 7쪽) 하례리만의 특수성인지를 구별해 주시면 독자의 입장에서 하례리의 특성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문을 읽으면서 의문 나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꼼꼼하게 읽고 질문을 던지려고 노력했지만 이해부족으로 인해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지식의 부족으로 잘못된 지적도 많을 것입니다. 제주도 지역사회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